

약자 지키는 성역 없는 감시자 역할 기대



광주일보 창사 63주년과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일보가 63년 동안 발행해온 2만호 안에는 지역민의 탐과 열정이 오롯하게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일보가 냉철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약자를 지키는 성역 없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항상 진실의 눈으로 보고 전하는 정통언론



긴 세월 동안 지역민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언론문화를 선도해온 광주일보 지령 2만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진실의 눈으로 보고, 바른 손으로 전하는 정통언론으로, 호남의 자존·문화를 지켜온 광주일보에 전남의 모든 교육가족과 더불어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장만체 전남도교육감〉)

2만호는 역사...광주일보에 아낌없는 박수



지역 일간지 최초로 2만호를 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만호 발행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일궈온 광주일보 가족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지역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독자 여러분의 사랑 속에 더 큰 성장 이투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지역정치권 기대 못미치면 매서운 비판을



호남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일보가 2만호를 맞이한 것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대표해 더욱더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을 대변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지역 정치권에 매서운 비판을 가해줄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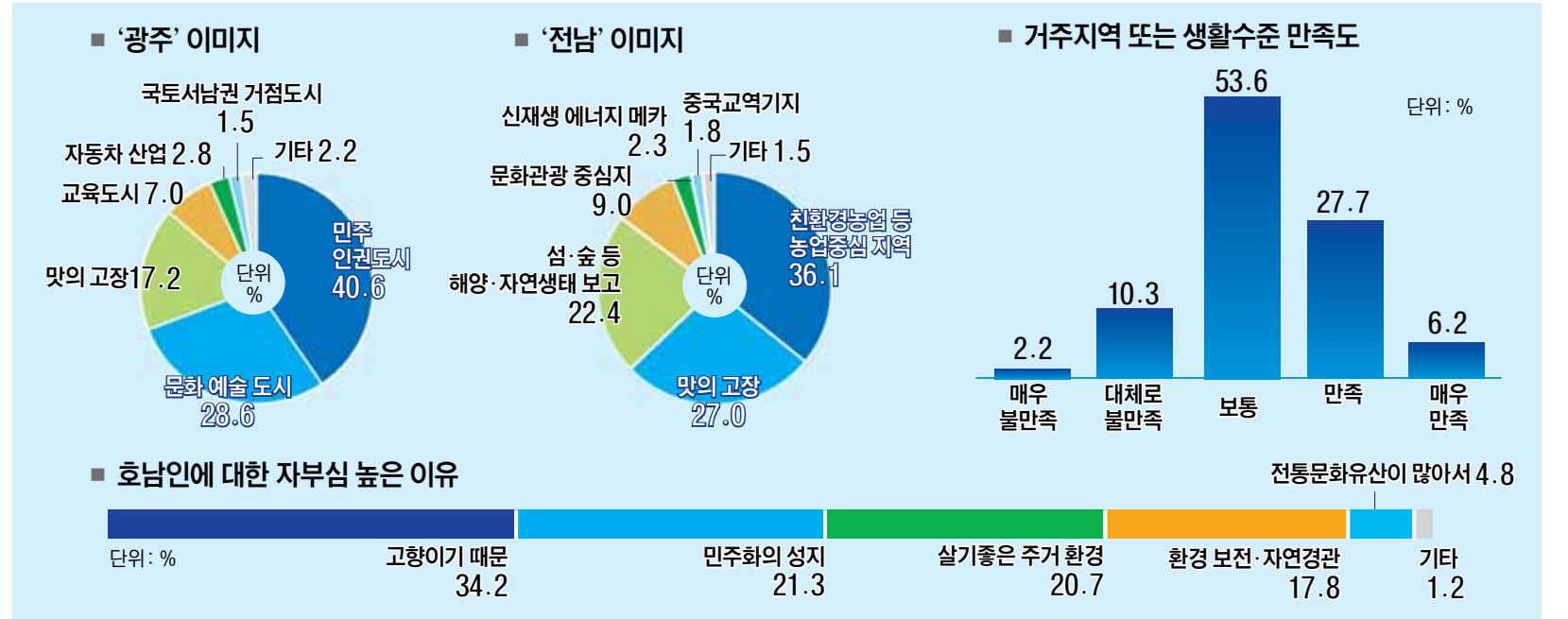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호남·호남인 여론조사 자부심

‘민주화 성지’ 자긍심 30대 29%로 가장 높아

광주일보는 지령 2만호 발행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및 문화생활, 정치의식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전화면접 여론조사했다. 시·도민 54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호남·호남인’ 대항부 여론조사는 지역주민들의 호남과 호남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은 어느 정도이며, 행복 및 생활 수준, 자신의 이념적 성향, 민선 지방자치의 정착수준 평가, 호남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내년 총선 시 현역 국회의원 지지의향 정도 등이 질문에 포함됐다. 또한,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과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감정 등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생활 조건·수준 34% “만족” 12% “불만족” 10명중 4명 “광주 이미지는 민주인권 도시” 전남 이미지, 농업 지역-맛의 고장 順 꼽아



◇호남인에 대한 자부심=‘자부심 높은 편’(43.3%) ‘자부심 매우 높음’(19.3%) 등 10명 중 6명 이상이 호남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부심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22.7%였고, ‘자부심 매우 낮다’는 3.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광주(65.8%)가 전남(60.3%)보다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67.5%)가 호남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40대(65.2%)·60대 이상(63.7%)도 평균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호남인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34.2%가 ‘고향이기 때문에’를 꼽아 고향에 대한 애착을 반영했다. 이어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21.3%) ▲살기 좋은 주거환경(20.7%) ▲환경이 잘 보전되고 자연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17.8%) ▲전통문화유산이 많아서(4.8%) 순이었다. 기타는 1.2%였다. 모든 성별·연령층에서 ‘고향이기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높았지만, 30대에서만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29.1%로 가장 높았다.

9%)·50대(33.7%)에서 ‘맛의 고장’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농업중심’이라고 답한 응답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동부권(광양·여수·순천·고흥·곡성·구례)만이 ‘맛의 고장’이라는 응답률이 29.5%로 높았을 뿐 모든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 등 농업중심지역’ 응답이 높았다. 중남권(강진·보성·완도·장흥·진도군)에서는 지역 특성상 섬·숲 등 해양·자연생태보고에 대한 응답률도 37.5%로 높게 조사됐다. ◇행복지수=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조건이나 자신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행복수준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 이상(53.6%)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7.7%, ‘매우 만족한다’는 6.2%로 나타나 ‘만족한다’ 평가 응답률은 33.9%였다. 반면, ‘대체로 불만족’ 응답률이 10.3%, ‘매우 불만족’이 2.2%로, ‘불만족하다’는 평가는 모두 12.5%로 나타났다.

문화전당 개관 기대 20대가 높아
광주 생활 만족도 서구가 최고
10명중 4명 “내 생활수준 중산층”
60대 이상 95% “일본 싫어한다”

지역별로는 광주(36.6%) 거주층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전남(31.9%) 거주층의 만족 수준보다 더욱 높았다. 광주에서는 서구 거주층의 만족 수준이 52.5%로 가장 높았고, 전남에서는 광주 근교권(나주·담양·영광·장성·화순군)이 36.7%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1.2%)·40대(41.5%)의 만족 수준이 50·60대(26.2%·27.0%)에 비해 크게 높았다. ◇생활수준=지역민 10명 중 4명(43.2%)은 스스로의 생활수준에 대해 ‘중류층’(중산층)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하류층(20.3%) ▲하류층(15.4%) ▲중상류층(13.2%) ▲상류층(2.4%)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률은 5.3%였다. 광주에서 중류층 이상인 중상류층(16.6%)·상류층(2.6%)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모두 19.2%로, 전남(중상류층 10.6%·상류층 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광주하계U대회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올림픽!!!

우르르~ 세계 젊은이들이 광주로 몰려온다~

7월

광주에서 함께 해요~

기간 2015. 7. 3. ~ 7. 14. (12일간)
장소 광주·전남·전북일원 경기장
규모 170개국 20,000여명
종목 21개 (정식 13 / 선택 8)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호남인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 이유로는 ‘낙후된 지역경제와 낮은 생활수준’이 42.4%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진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호남소외 때문’은 26.8%, ‘타지역에 대한 지역감정 때문’은 12.6%로 나타나 정치적·사회적 소외감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밖에 ‘낙후된 시민의식 때문’이 9.6%, ‘투쟁적 이미지가 짙어서’는 5.3%였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광주시민 10명 중 4명은 ‘광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민주인권 도시’를 꼽았다. 40.6%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광주가 지향하는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화예술도시(28.6%) ▲맛의 고장(17.2%) ▲교육도시(7.0%) ▲자동차 산업도시(2.8%) ▲국토서남권 거점도시(1.5%) 순이었다. 기타 응답은 2.2%로, ‘무등산’ ‘소비도시’ ‘빛고을’ 등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연령별로는 30·40·50대에서 ‘민주인권도시’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문화예술도시’(37.3%) 응답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젊은층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전남은 농도(農道)인 만큼 ‘친환경 농업 등 농업중심 지역’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맛의 고장(27.0%) ▲섬·숲 등 해양·자연생태 보고(22.4%) ▲문화관광 중심지(9.0%) ▲신재생에너지 메카(2.3%) ▲대(對) 중국 교역기지(1.8%) ▲기타(1.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양파’ ‘제철소’ ‘농민’ 등이 있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는 30대(38.4%)·40대(36.

반면, ‘대체로 좋아하는 편’은 16.5%, ‘매우 좋아한다’는 1.1%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싫어한다는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94.7%에 달했다. 일제 강점기를 겪은 세대라는 점에서 더욱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40대와 50대에서는 ‘싫어한다’는 응답률이 80%대로 높은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68~69%로 나타나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일본에 대한 감정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